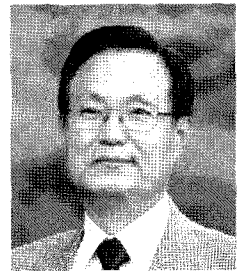


# 기술경영과 기술관리



신 응 백  
아주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공학박사/공장관리기술사 겸 국제기술사(산업공학)

## 1. 기술경영의 목적과 기술전략

### 1) 기술경영의 정의와 목적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MOT)은 “기술을 중시하는 경영”과 기술 그 자체의 효과적 경영”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경영학적인 접근인 반면에 후자는 산업공학적인 접근이온바 이들의 독립적 의미를 지니기 보다는 상호의존적 복합적인 관계로 이해함이 좋겠다.

기술경영의 어원적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조직의 전체적 활동에 관계없이 연구, 개발, 제조 그리고 기술과 과학자들의 기능적인 활동을 통합한 일반적인 경영활동을 기술전략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기술경영(MOT)은 기업의 목표달성과 기술경쟁력 배양을 위한 제 경영자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기능의 유기적 통합과정이며, 조직적 차원에서 본다면 각 부서/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부문별 고유기능을 기술적 관점에서 상호의존적·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통합과정으로 이해함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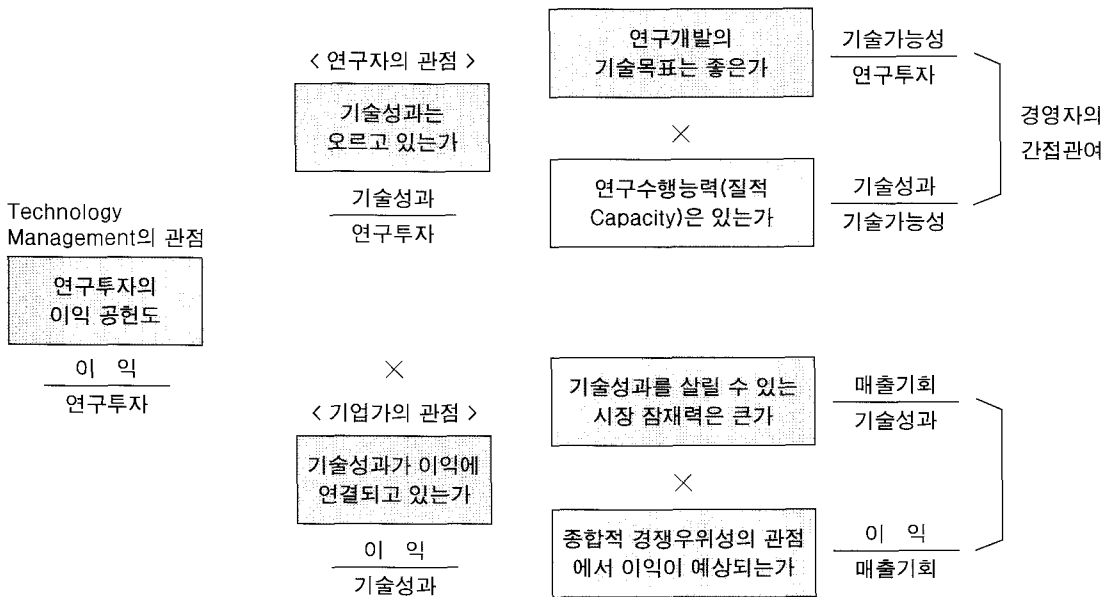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기술경영의 대표적 정의로서는 “공학 및 과학, 경영원리를 결합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능력을 기획·개발·운영하는 활동(미국 NCR, Task Force on MOT-1987)”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기술경영의 목적은 조직내 각 부문 및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 기술적 능력과 경험, 노하우 등과 자원, 하부조직구조, 조직활동 등 기술경영요소와

의 상호 유기적 활용을 기반으로 하여 최소의 기술투자로 최대의 경영효과를 달성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의 6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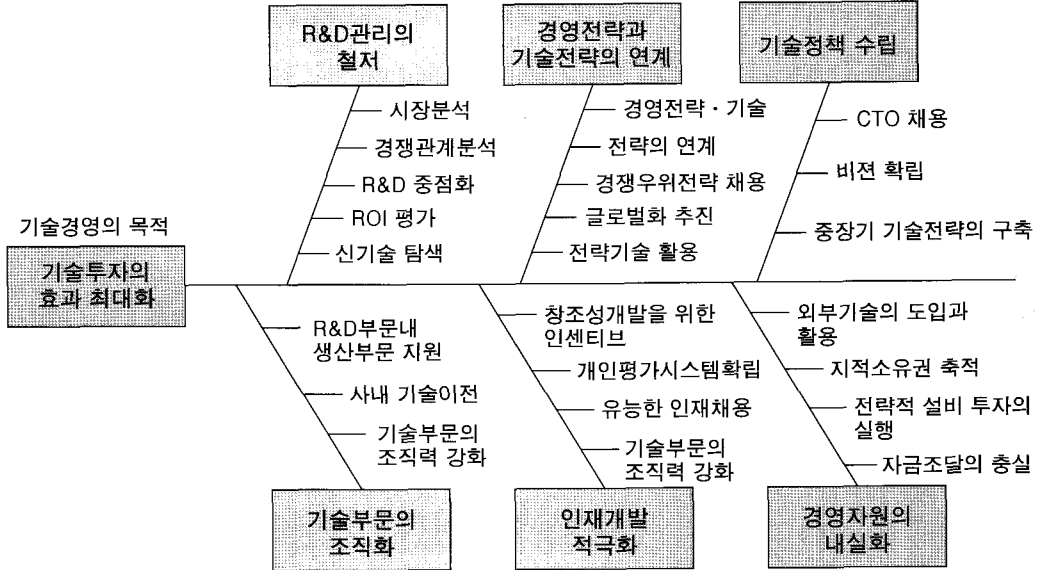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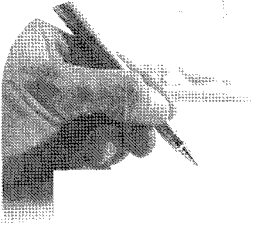
- ① 연구개발(R&D)관리의 철저
- ② 경영전략과 기술전략의 연계강화
- ③ 기술정책의 수립
- ④ 기술부문의 조직화
- ⑤ 인재개발의 적극화
- ⑥ 경영자원의 내실화 등

이는 기술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관리 항목”으로 다음 [그림-1] 과 같이 체계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직 내 각 부분의 관점에 따라 기술경영목적 을 달리 해석하기도 하며, 그 목적의 효율적 달성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다음 [그림-2]의 조직부문별 기술경영 목적 달성 성과분석체계도의 성과모형 식들을 활용하여 성과측정 지표를 산출함이 효과적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적 측면에서 납품관계의 협력회사와 경쟁업체들 간에 비교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기술경영”에 각별한 노력과 당해 기업규모에 적절한 실천이 요망된다.



자료 :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Selected Paper from Research · Technology Management, 1990. pp. 4~18

[그림 1] 기술경영의 목적과 달성방안 체계도



주) ROI : Return On Investment, CTO : Chief Technical Officer

[그림 2] 기술경영 목적 달성의 성과측정 지표와 체계도

## 2) 기술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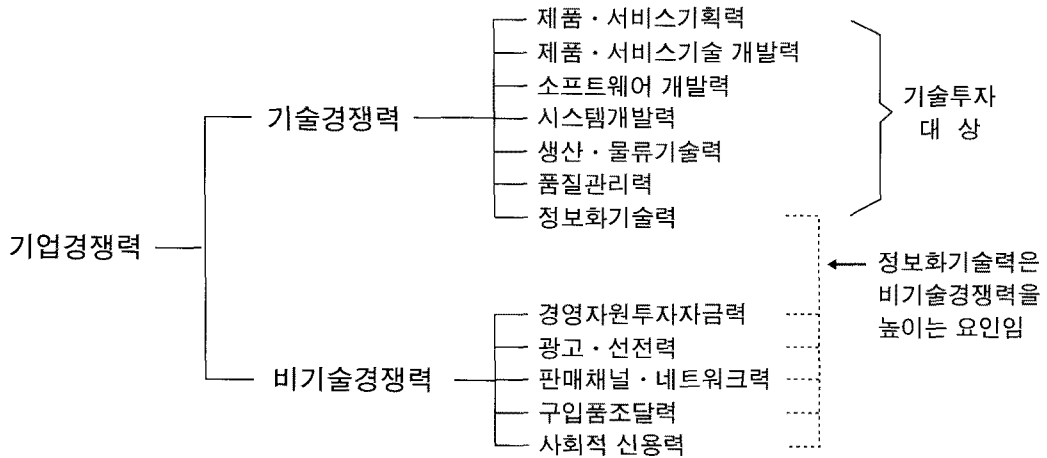
기술전략(Technology Strategy)은 기술경영과 함께 논의되는 개념으로서 기술의 개발·획득 차원의 기술개발전략의 상위 개념으로 기술개발은 물론 기술의 이전, 활용 측면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며, 그 개념정의는 기술전략(P. Adler-1989의 정의)은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의 수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패턴”으로 정의하였고, 다른 정의(R. Burgelman & R. Rosenbloom-1989)로서는 “기술의 선택, 기술경쟁력의 수준, 기술투자의 수준,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도입의 시기, 기술의 활용이나 개발을 위한 조직 등에 관련된 상호연관된 의사결정의 조합”이라고 하였

는바, 기술개발 및 기술투자 등으로 기술경영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술과제를 다루며, 기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경영활동이다.



여기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다음 <표-1> 기업경쟁력 결정요인 체계도와 같이 각 항목들에 대하여 꾸준한 기술경영의 노력과 체계적인 실천이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의 한 중요요소를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표-1〉 기업경쟁력강화를 기술적 및 비기술적 경쟁결정요인 체계표



## 2.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및 특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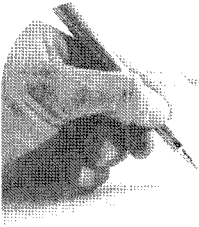
### 1) 지식재산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설립 협약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 노력에 의한 발명/과학적 발견/공업의장/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명칭/부당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동 협약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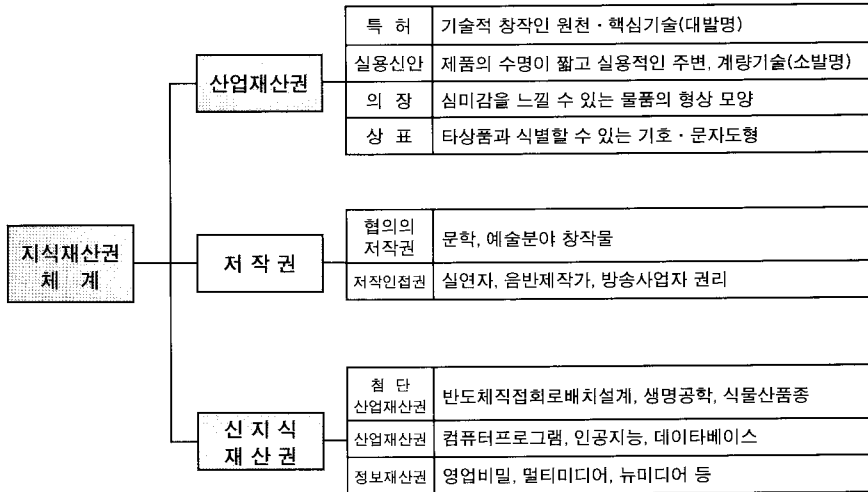
즉,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얻어진 정서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전통적인 재산권인 물건(物件)이나 채권(債權)과는 달리 별도의 재산권으로서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총칭으로서, 동산, 부동산 등의 유체물(有體物)에 대한 유체재산권과는 반대되

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無體物)에 대한 재산권으로서 일종의 무체재산권에 속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부여됨은 물론 자산적 가치가 높아 국가산업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체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소관기관 특허청), 문학·예술분야의 창작자 및 음반제작가·방송사업자의 권리인 저작권(소관기관 문화관광체육부), 컴퓨터프로그램(소관기관 정보통신부), 영업비밀(소관기관 특허청) 등의 신지식재산권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종류 체계 표는 상기 〈표-2〉와 같으며, 지식재산권별 주관기관 및 그 법률근거와 주요업무 요약하여 〈표-3〉의 요약표로 정리하였다.



〈표-2〉 지식재산권의 종류 체계표



〈표-3〉 지식재산권별 주관기관 및 법률근거와 주요업무요약표

권 리 별	담당부서 및 근거법률	주요업무 및 특징
산업재산권	특허청 「산업재산권 4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 심사, 등록, 심판</li> <li>권리분쟁의 준사법적 해결</li> <li>발명장려 정책수행</li> </ul>
저작권 및 데이터 베이스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리무심사 등록</li> <li>권리분쟁조정기능(조정위원회)</li> <li>창작활동 별도지원시책 없음</li> </ul>
컴퓨터프로그램	정통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식심사후 등록</li> <li>권리분쟁조정기능(조정위원회)</li> <li>정보통신산업육성시행</li> </ul>
식품신품종	농림부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신품종에 관한 심사·등록</li> <li>권리분쟁시 준사법적 해결</li> <li>(품종보호심판위원회)</li> </ul>
영업비밀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불필요</li> </ul>
품질특허	특허청「특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로 보호</li> </ul>
생명공학	특허청「특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로 보호</li> </ul>
Trade Dress 인공지능 프랜차이즈 원산지표시 멀티미디어 캐릭터 등	관련부처가 불 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입법 없이 현행 산업재산권4법,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중</li> </ul>

## 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로서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 중 산업과 관련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술적 사상의 공개의 대가로 국

가가 공권력으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기술적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 객체에 따라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의 종류인 각 보호객체별로, 이들 각기의 정의, 보호대상, 등록요건, 존속기간 등의 제도를 요약표로 정리하면 다음(표-4)와 같다.

〈표-4〉 산업재산권의 제도 요약표

구분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의 것(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	불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마감을 갖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보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호, 마크 등
보호대상	물건(물질, 장치), 방법(사용, 제조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수송자의 이익
등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상 이용가능성</li> <li>• 신규성</li> <li>• 진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상 이용가능성</li> <li>• 신규성</li> <li>• 진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성</li> <li>• 신규성</li> <li>• 창작성</li> </ul>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부등록대상	공서양속, 공중위생분해되는 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li> <li>• 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의장</li> <li>• 공서양속 위배 의장</li> <li>• 타인 업무와 혼동 우려가 있는 의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li> <li>• 공속양속문란 상표</li> <li>• 타인의성명명칭, 상호</li> <li>•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li> </ul>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출원공개	유	무	출원이 공개 신청가능	무
심사청구	유	기술평가제도 도입	무	무
이의	유	유	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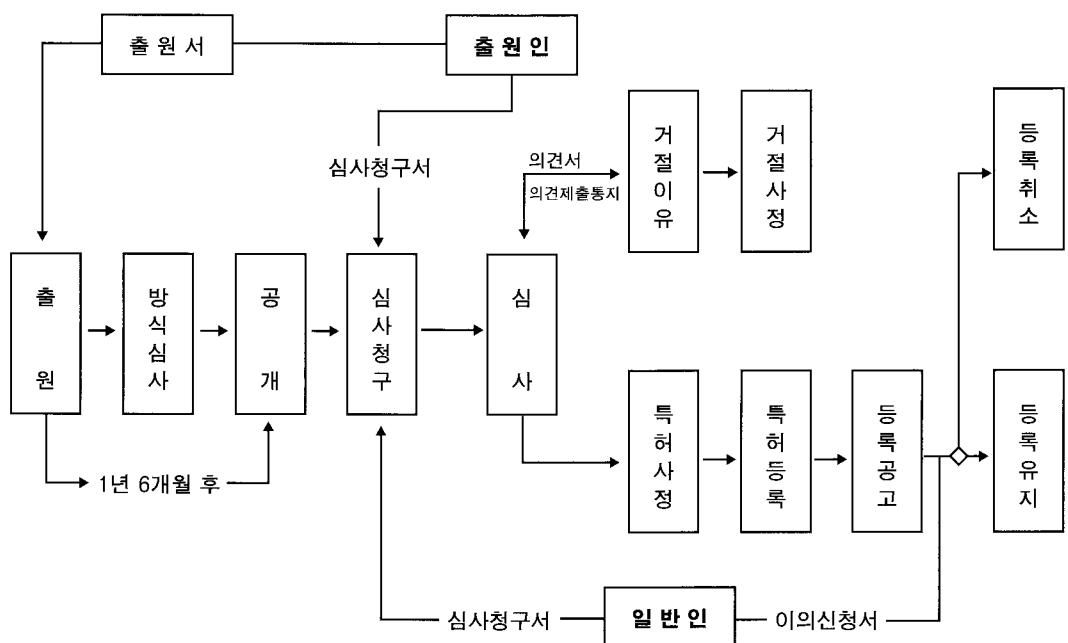
### 3) 특허출원 절차

특허제도는 발명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새로이 개발한 발명을 사회일반에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게 하고, 발명자에게는 그 공개의 대가로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해 주는 방법 법으로 체계화한 제도이다.

새로운 발명을 특허법 제2조에 의거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특허출원절차는 다음 [그림3]와 같으며, 이의 법정 대리인으로 한국변리사회 소속의 변리사 자격을 취득

한 전문가인 변리사(辨理士)를 활용함이 효과적이다.

특허출원은 서면(전자문서, FD출원)에 의하여 되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소정의 법정 "양식"에 적합하여야 하는 한편 수수료(출원료 등)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권의 구성은 소정의 출원에 대한 심사 또는 심판결과 특허사정 또는 등록심결 되어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결정등록 하는 특허처분이 행해지면 비로서 특허권이 발생된다. 특허권은 형체가 없는 무형재산이며 동산, 부동산 등 유체적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법상의 소유권과 구별된다.



[그림 3] 특허등록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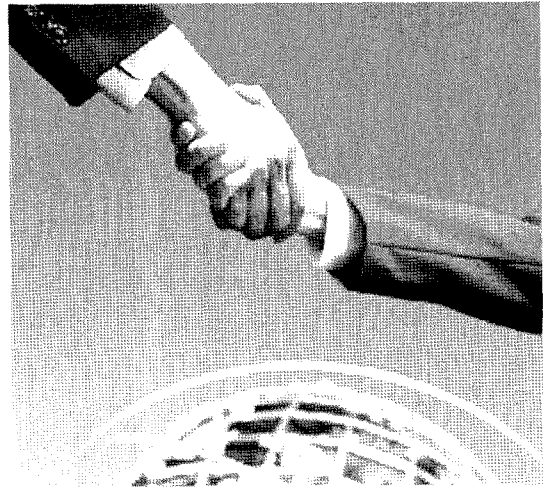
### 3. 기술관리상 생산성 개선대책과 경영 평가지표

#### 1)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향상 공통장애 요인과 개선대책

현하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향상 추진상의 제반 장애요인들 중에서 업종 여하 간에 공통적인 주요사항들 몇가지를 선정하여, 기술관리상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개선방향과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 성장기였던 "1972~1983년" 기간 중 경제성장애 대한 생산성 기여도가 36.6%에 불과하였고, 현하 저생산성시기에 생산성향상의 기여도가 저조한 상황에서 올바른 생산성향상의 의의와 그 향상효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산성투입요소의 양적 증대보다 질적 수준향상에 중점노력을 함과 동시에 전관계자들에게 생산성의 올바른 본질적 개념이해와 그 향상효과를 바르게 숙지시켜 근로자들 스스로가 생산성향상이 노동착취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한다.

둘째,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적요인 이외에 인적노력에 의한 근로의욕 양양으로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내 정선문화 및 가치관의 혼란과 생산주체인 경영 관리자와 근로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디지털경제하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경영시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인터넷비즈니스를 행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시스템의 쇄신과 적용, 최신 기술(제조기술 및 IT기술과 관리기술 등)과 신설비 및



전근대적 경영으로부터 현대경영에 훈련되지 못한 채 과열화된 노사관계가 생산성향상 열기를 냉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디지털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생산적 가치관의 재정립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인 디지털경영에서 경영의 사결정과 능률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방식 및 의사결정법 등을 익히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노사관계의 의식구조를 상호이해하고, 협조적·민주적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제조기업 경영애로부분 조사보고(대한상공회의소/경기도 안양·부천상공회의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35년간 "생산관리부문의 애로사항"이 전체의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공장)에서 전근대적 비과학적 생산관리활동으로 인한 생산의 비능률과 비경제적 품질관리의 비 시스템 추진으로 품질·원가·납기의 경제적 균형유지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관리의 학문체계와 본질에 순응하고 합리적인 생산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원가·납기의 경제적 균형유지를 위한 작업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생산관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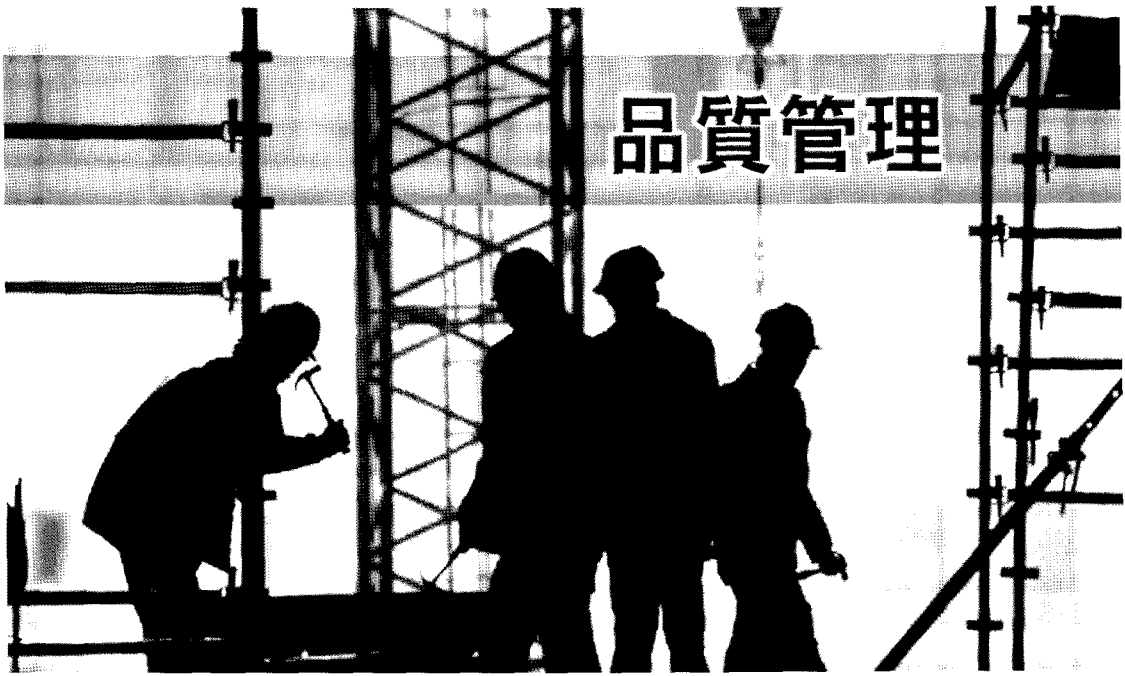
넷째, 최근의 중소기업 경영애로는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인상이 가장 큰 애로요인인바 경영자는 노동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인상률에 지불능력이 허약하고, 근로자는 임금인상의 대폭실시를 일시적으로 원하는 대립관계로 태업 및 생산중단으로 경영주의 투자이익 상실 및 작업원의 근로이익 상실을 동시에 가져와 생산성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입장과 우리의 문화적 바탕 위에서 추진하였던 성공사례로서 “공장새마을 운동의 기본이념”에 철저히하여 “사원들은 가족처럼, 공장일을 내일처럼” 여겨온 공동운명체 형성을 위한 전사적인 창조적 정신개혁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임금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영관리는 물론 근로자도 공히 “물질노동생산성의 향상, 부가가치율의 향상, 노동분배율의 향상, 가치혁신을 통한 제품가격 제값받기” 등을 실현시켜 기업체질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노사분규와중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노사간의 문제를 부품 납품협력업체나 소비자에게 가격인상 등의 행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어긋나는 비민주적 악덕기업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기업(공장)의 업무수행은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적인 시스템관계에서 조직·직무간, 공정간의 유기적 관계의 유지개선으로 이룩되는바, 본질적 의미에서 협동의 분위기를 깨트림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곤란하여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저해



를 받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동적인 태도 형성은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성숙되며, 훌륭한 인간관계형성은 인간성존중 사상에서 직업, 문벌, 집안 권력, 금력, 생김새 등등 인간의 본질적 내면사항보다는 겉 형식에 치우친 인습과 혼란한 가치관이 산업민주화시대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생산성 가치관의 확립과 인간자체를 오히려 바로 볼 줄 아는 분위기 쇄신으로 과거의 형식적인 총화단합행사보다는 인간본성에 근거한 인간성 존중과 인간관계 유지개선에 산업심리학과 행동과학 측면 등에서 개선시켜 나아가야 하겠다.

여섯째, 현재까지 널리 보급 확산된 듯한 품질관리(QC)활동도 학문적 좌표와 본질을 벗어난 '70년대 TQC단능의 인식과 유행적이고 형식적인 활동과 '품질관리 분임조활동' 이 곧, '종합적 품질관리(TQC)'라고 오인(誤認)하게 된 분위기하에서 QC의 진정한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KS A 9000(품질시스템규격 시리즈) 제정



으로 국제적 흐름에 따라 『KS Q ISO 9000-2007(중전 ISO 9000시리즈=KSA 9000시리즈-2001)』의 품질경영(QM)시스템 인증제도가 과 포장(誇包裝)되어 소비자 제일주의의 진정한 품질경영(QM)활동이 아닌 “ISO 9000-품질시스템” 인증획득의 광고 선전용 형식화와 유행적 풍토에 젖어 그 내실을 잃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의 학문적 연관관계와 좌표, 그리고 그 본질과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QC기법의 적용은 비법도 목적도 아닌 수단도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내표준화 바탕위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는 소비자 지향적인 합리추구로 처음부터 올바르게 행하는 인식전환과 시스템·어프로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시대흐름의 변화수용에 따라 『KS A ISO GUIDE 64: 2007(중전 KSA 14000-64)-제품규격에서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침』을 수용하는 “환경경영”에 동시노력을

하여야 한다.

일곱째, 신기술과 새로운 작업방법의 개발부진, 설비근대화와 자동화부진, 적극적인 연구개발 부진, 투자이익 상실로 인해 선진국을 비롯해 경쟁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 경영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인의 의식혁신으로 합리적이고 시스템적인 다각 경영전략 하에 과감한 기술개발을 하고, 필요 인력양성에 적극 노력함과 함께 이를 전제로 한 간이지동화(LCA) 및 공장자동화(FA)를 경제성 바탕위에서 “체계적인 기술관리”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며, 이의 적극추진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특히 공장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은 전체성과 상호관련성 및 목적성을 가진 시스템·어프로치(System Approach)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2)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향상 공통장애  
요인과 개선대책**

2007년도 국내 제조업 기업경영실적 현황을 요약정리하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9%(대기업 6.7%, 중소기업 4.5%)이고, 매출액증가율이 9.3%(대기업 10.2%, 중소기업 7.8%), 금융비용이 1.25%(대기업 1.01%, 중소기업 1.67%), 자기자본 비율이 50.55%(대기업

53.98%, 중소기업 43.65%), 부채비율은 97.83%(대기업 85.25%, 중소기업 129.08%),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469.80%(대기업 666.38%, 중소기업 267.85%)였고 매출액세전순이익률(순이익÷매출)은 6.37%(대기업 7.89%, 소기업 3.78%)로 집계 분석되었다(2007년 기업 경영분석 - 환은 : 2007.7.31)

**<표-5>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영평가기준지표**

주요 평가 항목		경영지표		평가기준
		2006	2007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5.85	7.75	높을수록 양호
	총자산 증가율	9.56	11.78	상 동
	유형자산 증가율	7.23	7.85	상 동
안정성	차입금 의존도	30.92	32.00	평균이하 양호
	자기자본 비율	42.99	43.65	표준율 50% 이상
	부채비율	132.59	129.08	100%이하 표준
	유동비율	124.03	125.12	200%이상 건전
생산성	총자본투자 비율	26.74	26.26	업계평균 대비
	부가가치율	24.55	24.81	높을수록 양호
	노동소득분배율	72.90	72.13	업계평균 이상
수익성	매출액순이익율	2.54	2.72	높을수록 양호
	차입금평균이자율	6.45	6.70	업계평균 대비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용	1.50	1.67	낮을수록 양호

주) ① 2006~2007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08.7.31) p.119 자료 인용 재가공.

② <http://ecoss.bok.or.kr> → 기업경영분석 → 기업경영분석지표 → 제조업 → 중소기업(2007년 기업경영분석, p.119 참조)

경영진단시 재무분석의 판단지표로서 최근 당해 연도 기업경영 분석결과(한국은행 매년도 7월 경 발행)를 비교 참고함이 유용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통계분석자료의 재가공을 한 “2008년 중소기업 현황(중소기업중앙회: 2008.4) 및 2007년 중소기업 경제·경영지표(중소기업진흥공단: 2007.5)” 등에 등재되어 있는 근년의 중소기업경영지표들이 경영평가 지표로서 참고자료가 되겠다.

여기서 기업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나무의 잎과 줄기는 성장성  $\Delta$  열매는 생산성과 수익성  $\Delta$  뿌리는 안정성과 장래성으로 비유될 수 있겠다. 그리고, 생산성은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등이며,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생산성지표로서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의 5가지가 생산성을 대표할 수 있겠다. 국내 중소 제조기업은 1인당 매출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라야 우량기업이 될 수 있겠으며, 1인당 부가가치액도 4천1백5십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http://stat.kbiz.or.kr/2006년도> → 중소기업경영지표 → 생산성지표1에서 인용)

수익성은 측정하는 지표는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 보상비율 차입금 평균이자율 금융비용 대 매출액비율 등이다. 여기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평가 기준지표들으로써 최근 2006~2007년도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결과 평균지표를 인용·예시하면 다음(표-5)과 같다.

그리고, 기업내부의 생산성향상 활동과 기업의 활동성은 경영분석을 통하여 평가하고 또한 기업의 주

요 생산성효율 평가지표들로서 다음의 주요평가 항목들을 예시할 수 있다.

즉, ①종업원 1인당 연간 생산액, ②종업원 1인당 연간 가공액, ③가공액 대 인건비율, ④원재료 회전율, ⑤재공품 회전율, ⑥제품회전율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동업종 평균치비교와 함께 당해기업의 매년도별 실적치의 비교분석으로써 생산성효율의 향상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당해 기업의 활동성을 판단할 수 있겠다.

여기서 당해업종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생산성 관련지표”는 한국은행에서 매년도 발행하는 “기업 경영분석결과(2007년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 2008.7.31)”에서 인용한 “2007년도 중소 제조업 생산성에 관한 주요경영지표”는 본誌 2008년 9월호, pp.50~51의(표-1)에서 요약·발표하였으며, 이들 각 항목들의 결과치는 “경영합리화의 달성척도”인바, 근래에는 기업 경영의 결과로 얻어진 경영성과를 “부가가치 생산성”이란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